

붓다의 깨달음 직후 7주간의 행적 내러티브 연구
- *Dīpavaṃsa* 1.29-30송과 *Mahāvāṃsa* 1.13송, 그리고
Papañcasūdanī vol.II pp.183-186을 중심으로 -

권예림*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석사과정
안재근**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석사과정
김경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조교수

목 차

- I. 서론
- II. 연대기 비교연구: Dpv 1.29-30; Mhv 1.13
- III. 주석서 분석: ; Pps II pp.183-186
- IV. 결론

* 공동저자 : 권예림

** 공동저자 : 안재근

*** 교신저자 : 김경래

국문초록

붓다의 깨달음 이후 7주간의 행적은 스리랑카를 비롯하여 테라와다를 신앙하는 다수의 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내러티브를 다루고 있는 연대기와 주석서들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문헌들 속에서 이 내러티브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논자가 비교연구를 위해 선정한 텍스트는 테라와다 전통의 대표적인 두 연대기 『디빠왕사(*Dīpavaṃsa*)』와 『마하왕사(*Mahāvāṃsa*)』, 그리고 주석서 『빠뻠짜수다니(*Papañcasūdanī, Majjhima Nikāya Aṭṭhakathā*)』이다. 이들 두 연대기는 간략한 계승으로 붓다의 행적을 묘사하고 있음에도 총 7주에 걸친 해당 내러티브의 분명한 기간과 더불어 각각의 장소들 또한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석서는 이 7주간의 행적을 화려한 수식어구들과 풍부한 비유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주석서의 내러티브는 아비담마의 기원을 묘사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더불어 운문으로 구성된 연대기가 생략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이전 초기문헌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후기 빠알리 문헌들에서만 발견되는 서술적 특징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삼장 이후 테라와다 문헌들이 모종의 일관된 해석학적 의도를 바탕으로 저술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 의도가 지향하는 목적이 바로 아비담마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주제어

『디빠왕사』, 『마하왕사』, 『빠뻠짜수다니』, 연대기, 테라와다 아비담마

1. 서론

본 논문은 테라와다 연대기와 주석서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시론으로서, 이 거시적인 연구의 출발점으로 논자가 선택한 주제는 <붓다의 깨달음 직후 7주간의 행적>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이 내러티브를 다루고 있는 세 가지 텍스트, 『디빠왕사(*Dīpavaṃsa*, 이하 Dpv)』와 『마하왕사(*Mahāvamsa*, 이하 Mhv)』, 그리고 맞지마 니까야 주석서(*Majjhima Nikāya Aṭṭhakathā*)인 『빠뻠짜수다니(*Papañcasūdanī*, 이하 Pps)』를 비교분석했다.

Dpv는 현재 전승되고 있는 빠알리 연대기들 중 가장 오래된 텍스트로, 비록 텍스트로서의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그 안에는 정제되지 않은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이 담겨있다. 이러한 점은 Dpv가 테라와다 초창기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학적 관점을 제시해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Mhv는 Dpv를 포함한 이전 연대기(들)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서 운문 텍스트로서의 형식이 잘 갖추어져 있음은 물론, 현존하는 빠알리(Pāli) 문헌을 전승해온 마하위하라(Mahāvihāra) 세력의 역사관이 적극적으로 투사된 역사서이다. 논자는 테라와다 역사관을 대변하는 두 연대기의 서술을 통해 이들이 초기문헌들과 이질적인 역사관을 확립하고 있었음을 밝힐 것이다.¹⁾

1)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들 연대기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이거(Wilhelm Geiger)를 통해 두 연대기의 전반적인 비교연구가 이루어졌고, 이후 말라라세케라(G. P. Malalasekera)와 노먼(K.R. Norman), 그리고 힌뉘버(Oskar von Hinüber) 등에 의해 기본적인 텍스트 정보가 제공된 바 있다. 최근에는 왈터스(Jonathan Walters)가 두 연대기에 담겨있는 사료적 가치를 조망했다. Geiger(1905); Malalasekera(1928) pp.130-142; Norman(1983) pp.114-118; Hinüber(1996) pp.87-99; Inden et al.(2000) pp.99f; 국내에서는 이자량(2001; 2002; 2003; 2004a; 2004b)과 김경래(2012; 2014; 2015; 2019b; 2019c) 등에 의해 부분적인 연구

Dpv와 Mhv 이외에 또 다른 비교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 논자가 선택한 텍스트는 맞지마 니까야 주석서(*Majjhima Nikāya Atthakathā*)인 Pps이다. Dpv와 Mhv는 비록 중요한 정보를 함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단지 1-2개의 계송(Dpv 1.29-30; Mhv 1.13)만을 통해 '붓다의 깨달음 이후 행적'을 간략히 다루고 있다. 반면, Pps는 붓다의 깨달음 이후 7주간의 행적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특히 이 기간에 이루어진 붓다의 아비담마 확립에 대한 에피소드를 상세하게 담아내고 있다.

본 논문은 이상의 세 가지 텍스트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Dpv와 Mhv의 짧은 묘사 속에 담긴 붓다의 행적을 분석함으로써, 연대기에 투사된 - 초기불전과는 차별화된 - CE 4세기 이후의 테라와다 역사관을 살펴본다. 둘째, 7주간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주석서 문헌을 통해, 비록 두 연대기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밝혀냄으로써 연대기 문구들이 지닌 온전한 의미를 복원한다. 셋째, 이상의 비교작업을 통해 도출되는 연대기와 주석서 간의 관련성, 그리고 초기문헌들과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더불어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자가 이전 논문들에서 간과했던 부분들 혹은 수정해야 할 부분들 또한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보완할 것이다.²⁾

가 진행되었다.

- 2) Dpv와 Mhv의 비교연구 및 Pps 분석에 대해서는 김경래(2015) pp.229-253; (2019b) pp.109-138; (2019c) pp.9-33 참고; 본 논문은 이들 선행연구 당시 검토할 수 없었던 연대기들, 그리고 당시 번역 오류가 있었던 주석서들을 보완한 연구로서, 본 연구의 공동저자인 안재근과 권예림은 각각 *Dīpavaṃsa*와 *Mahāvamsa* 계송들을, 교신저자인 김경래는 *Papañcasūdanī*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개별 세미나를 통해 세 명의 원전분석을 비교 연구한 결과물임을 밝힌다.

II. 현대기 비교연구: Dpv 1.29-30; Mhv 1.13

Dpv와 Mhv는 깨달음 직후 7주간의 행적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면서도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Dpv 29송:] [깨달음을 얻은] 자리와 아니미사, 산책길, 보석 집, 아자빨라와 무짚린다, 그리고 7번째로는 키라빨라 주변에서, [30송:] 승리자께서는 7주간의 의무를 다양하게 행하셨다. 그리고 영웅께서는 법의 바퀴를 굴리기 위해 바라나시(Bārāṇasi)로 가셨다.³⁾

[Mhv 13송:] 그 능력자(vasī)께서는 그곳에서 7주 동안 더할 나위없는 해탈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그리고 그 [해탈의] 달콤함을 보여주시면서 지내셨다.⁴⁾

Dpv는 다소 거친 표현법으로 7주간 행적들의 무대가 되었던 7가지 장소들을 나열하고 있다. 반면, Mhv는 붓다의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저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장소 주변에서 해탈의 여운을 맛보며 7주를 보냈음을 언급하고 있다.

앞선 연구를 통해 밝혔듯,⁵⁾ 화지부(Mahīśāsaka)의 『오분율(五分律)』과 법장부(Dharmagupta)의 『사분율(四分律)』 같은 초기 한역문헌들은

3) pallaṅkaṃ animisaṅ ca caṅkamaṃ ratanāgharaṃ, ajapālamucalindo khīrapālena sattamaṃ, sattaṣaṭṭhākaraṇīyaṃ katvāna vividhaṅ jīno, bārāṇasiṃ gato viro dhammacakkaṃ pavattitūṃ. Dpv 1.29-30.

4) sattaḥāni taḥiṃ satta so vimuttisukhaṃ paraṃ, vindaṃ taṃmadhurattaṃ ca dassayanto vaṣī vaṣi. Mhv 1.13.

5) 김경래(2015) pp.229-253.

붓다의 깨달음 직후 행적을 42일로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행적의 내용과 장소 또한 Dpv의 증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분율』은 깨달음 직후 병을 얻어 치료를 마친 붓다가 두 상인을 귀의시키고, 문린용의 보호를 받은 이후 브라만 가족을 비롯한 중생들을 교화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법을 권유하는 범천과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다. 『사분율』 또한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있을 뿐 『오분율』과 거의 동일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다.⁶⁾

연대기와 초기불전 간의 이러한 차이점은, 같은 테라와다 전통 내에서 전승되었던 위나야(Vinaya) 『마하왱가(Mahāvagga)』에서도 발견된다. 『마하왱가』는 두 한역문헌과 달리 총 28일 간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⁷⁾ 깨달음 직후 연기법의 12요소들을 관찰한 붓다는 거만한 브라만 사제를 우연히 만난 후 무찔린다 나가의 보호를 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이후 최초의 재가신자인 두 상인의 귀의를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함빠티 범천을 만나 설법을 요청받는다. 이처럼 깨달음 직후 붓다를 둘러싼 에피소드는 부분적으로 유사하지만, Dpv 29송이 나열한 ‘아니미사(animisa)’, ‘산책길(caṅkama)’, 그리고 ‘보석집(ratanāghara)’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⁸⁾

붓다의 깨달음 직후 내러티브와 관련하여, 초기문헌으로 분류되는 텍스트들과 후대에 저술된 연대기들 - 현존하는 最古 연대기인 Dpv의 제작 시기는 대략 CE 4세기 전후로 알려져 있다 - 사이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후자의 문헌군이 붓다의 행적을 49일(satta-sattāha)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연대기들은 7주간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데, Mhv의 경우 그저 해탈의 기쁨(vimuttisukha)을 누리고 그 달콤함(taṃ-madhuratta)을 드러냈다는 것을 언급

6) T22 (no.1421) pp.102c20-103c6; (no.1428) pp.782a26-786b12.

7) Vin I pp.1-4.

8) 초기 한역문헌들과 빠알리 위나야에 서술된 깨달음 직후의 내러티브에 대해서는 김경래 (2015) pp.229-253 참고.

하고 있을 뿐이다. Dpv 역시 마찬가지로 붓다의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없이 그저 7주간 이동했던 7군데의 장소를 지정하고 있을 뿐이다.

Dpv는 7주간 붓다가 머물렀던 장소들로 *pallaṅka*, *animisa*, *caṅkama*, *ratanāghara*, *ajapāla*, *mucalinda*, *khīrapāla*를 언급하고 있다. 이들 중 *pallaṅka*와 *caṅkama*는 남성명사이므로 Dpv가 서술한 ‘-am’의 형태는 단수 목적격이 된다. 그리고 이어서 나열된 형용사 *animisa*와 중성명사 *ratanāghara*는 주격과 목적격 모두 가능하지만, 앞서 언급된 두 단어(*pallaṅka*와 *caṅkama*)와 격을 일치시키고자 한다면 목적격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 나열된 *ajapāla*와 *mucalinda*는 복합어 형태로 결합되어 남성 단수 주격인 ‘-o’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 마지막 *khīrapāla*는 구격(*ins.*)형태로 서술되어 ‘키라빨라 주변’을 의미하기에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앞선 6장소들을 나열하는 Dpv의 서술 형태는 문법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목록을 나열하는 경우 격(*case*)이 일관되게 통일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처음 네 장소를 지칭하는 *pallaṅka*, *animisa*, *caṅkama*, *ratanāghara*는 모두 중성명사였어야 했다. 이러한 Dpv 29송의 거칠고 모호한 문구에 대한 이해는 주석서 Pps의 구체적인 서술을 통해 해소된다.

III. 주석서 분석: Pps II pp.181-186

Pps는 붓다의 깨달음 직후 첫 일주일의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위대한 분께서는 해가 떠있는 바로 그 때 마라의 군대를 물리치신 후, 밤의 처음(初分)에는 과거 생에 대한 앓(*pubbenivāsañāṇa*)을, 밤의 중간에는 天眼을 청정하게 하시고서, 밤의 끝에는 연기에 대한 앓을 드러내셨다. 부처님께서 해가 뜰 때까지 [연기법을] 날날이

사유하신 후, “나는 수억劫의 시간동안 이 자리를 위해 정진했다.”
라고 [말씀하시고서] 7일간 결가부좌 한 자세로 앉아계셨다.⁹⁾

깨달음 이후 첫 번째 일주일에 대한 Pps의 구체적인 묘사는 세 가지 주제로 구분된다: (a) 마라의 공격, (b) 연기법 관찰, (c) 깨달음의 자리.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제에 맞추어 연대기와의 상응구를 조합해보면 아래와 같다.

(a) 마라의 공격

[Pps:] 위대한 분께서는 해가 떠있는 바로 그 때 마라의 군대를 물리치신 후,

[Dpv:] 마치 두려움을 떨친 사자처럼, 군대를 이끌고, 코끼리를 타고 온 마라를 보시고도 동요하지 않으셨다. 마라의 주장을 논파하시고서, 군대를 이끌고 온 [마라]를 물리치셨다.¹⁰⁾

(b) 연기법 관찰

[Pps:] 밤의 처음(初分)에는 과거 생에 대한 앎(pubbenivāsañāna)을, 밤의 중간에는 天眼을 청정하게 하시고서, 밤의 끝에는 연기에 대한 앎을 드러내셨다. 부처님께서 해가 뜰 때까지 [연기법을] 날날이 사유하신 후,

[Dpv:] 숙명통과 천안통의 눈을 지니시고 위대한 앎을 지니신 분께서는 여러 형태로 얽혀있는 담마를 사유하시면서 밤을 보내셨다. 그리고서 시리가나(sirīghaṇa, 尸梨伽那)¹¹⁾께서는 밤의 끝에

9) mahāsatto suriye dharamāne yeva mārabalaṃ vidhamitvā paṭhamayāme pubbenivāsañānaṃ, majjhimayāme dibbacakkhuṃ visodhetvā pacchimayāme paṭiccasamuppāde ñāṇaṃ otāretvā vaṭṭavivaṭṭaṃ sammasanto aruṇodaye buddho hutvā mayā anekakappakoṭisatasahassaṃ addhānaṃ imassa pallaṅkassa atthāya vāyāmo kato ti sattāhaṃ ekapallaṅkena nisīdi. Pps II pp.183-184.

10) na chambhati vitabhayo va kesarī disvāna māraṃ sahasenavāhanaṃ. māravādaṃ bhinditvāna vitrāsetvā sasenakaṃ Dpv 1.7c-8b

11) sirī는 여성명사로서 '행운' 혹은 '성스러움'을 의미하고, ghaṇa는 ghana의 오자로서 '단단

조건들이 지닌 특징을 통찰하셨고 순으로 역으로 마음에 새기셨다.¹²⁾

(c) 깨달음의 자리

[Pps:] “나는 수억劫의 시간동안 이 자리를 위해 정진했다.”라고
[말씀하시고서] 7일간 결가부좌 한 자세로 앉아계셨다.

[Dpv:] 광채를 자아내는 분께서는 모든 법들에 대한 우다나를
설하신 후, 곧바로 최고의 자리에서 7일을 보내셨다.¹³⁾

위와 같은 주석서와 연대기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는, 이들이 상보적인 관계로서 동일한 사료를 공유했으며, 이를 통해 서로의 내러티브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컨대, 두 번째 주제인 〈연기법 관찰〉의 경우, Pps의 서술로 인해 빠다(pada)를 분할하여 이 내러티브를 시적으로 묘사하고자 했던 Dpv의 의도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즉, Dpv 9송 네 번째 빠다(pada)에 언급된 ‘여러 형태로 얽혀 있는 담마를 (dhammaṃ anekākāraṇissitaṃ)’이라는 문구는 연기법에 대한 시적 표현으로서, 10송의 현재분사인 ‘사유하시면서(sammasanto)’의 목적어가 된다. 이렇게 연결된 9송 4빠다와 10송의 서술어는 〈연기법 관찰〉이라는 붓다의 행적을 담아내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Pps와의 상응구를 통해 확인 가능해진다.

또한 Pps는 ‘나는 이 자리를 위해 정진했다(mayā·imassa pallaṅkassa

한’, ‘깊은’, ‘어두운’ 등을 의미한다. Cone II p.80; 이 표현은 붓다를 치칭하는 단어로서, Dpv보다 앞서 제작된 대승문헌들에서도 그 용례가 발견되며, 덕스러움이 두터우신 분(厚德)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復名尸梨伽那(秦言厚德). 『大智度論』 T25(n1509) 73b10.

12) dhammaṃ anekākāraṇissitaṃ pubbenivāsaññaṇaṃ ca dibbacakkhuñ ca cakkhumā, sammasanto mahāñāṇī yāme tayo atikkami. tato pacchimayāmaṃhi paccayākāraṃ vivaṭṭayī, anulomaṃ paṭilomaṃ ca manasākā sirīghaṇo. Dpv 1.9d-11.

13) bujjhitvā sabbadhammānaṃ udānaṃ katvā pabhaṅkaro, tad’ eva pallaṅkavare sattāhaṃ vitināmayī. Dpv 1.14.

atthāya vāyāmo kato)’라는 문구를 통해 붓다가 깨달음 직후 첫 일주일을 보낸 ‘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Dpv는 ‘최고의 자리에서 7일을 보내셨다(pallaṅkavare sattāhaṃ vītināmayī)’라는 문구를 바탕으로 정확히 같은 장소를 서술하고 있다.

pallaṅka는 남성 명사로서 가부좌 자세 자체를 의미하거나 혹은 가부좌를 할 수 있는 자리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Dpv 1장 29송이 깨달음 직후 첫 번째 일주일을 보낸 장소로 지명한 pallaṅka는 일반적인 가부좌 혹은 가부좌를 위한 자리가 아닌, 붓다가 깨달음을 성취한 자리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단어의 완전한 형태는 Dpv 스스로 14송에서 언급했듯, pallaṅkavara이다. vara는 남성이나 여성은 물론 중성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명사이며, 주로 복합어의 마지막 단어로 조합되어 ‘최고’라는 의미를 형성한다. 따라서 붓다가 깨달음 직후 첫째 주를 보낸 장소는 깨달음을 성취한 ‘최고의 자리(pallaṅkavara)’를 의미하며, pallaṅkavarāṃ은 중성명사 주격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

Pps는 두 번째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그러자 어떤 天神들에게 “붓다가 되기 위해 행해야 할 다른 의무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일어났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8일째 되는 날 선정으로부터 나오셔서(出定) 신들의 의심을 알아차리시고는 [그들의] 의심을 없애주기 위해 하늘로 솟구쳐 오르신 후 두 가지 기적을 보이셔서 그 [神]들의 의심을 없애주시고는 자리로부터 북동쪽에 잠시 서 계신 후, 4아승지와 10만겁이 지나 바라밀이 성취되자, [바라밀의] 결과를 얻으신 바로 그 자리와 보리수를 깜빡이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시며 일주일을 보내셨다. 그 장소는 ‘아니미사(animisa)’라 불리는 성역이 되었다.¹⁵⁾

14) Cone III pp.364-365; MWD (<https://sanskritdictionary.com/vara/201952/1>)

15) atha ekaccānaṃ devatānaṃ kin nu kho aññe pi buddhattakarā dhammā atthi ti kaṅkhā udapādi. atha bhagavā atthame divase samāpattito vuṭṭhāya

yamaka-pāṭihāriya는 yamaka-hira로도 표현되며, ‘한 쌍의 기적’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붓다의 전기 내러티브 속에서 쌍신변(the miracle of the double appearances) 혹은 사왓티에서 외도들을 향해 붓다가 펼쳤던 기적을 지칭하기도 한다. 빠알리 문헌 속에서 이 신통력은 다소 광범위한 형태로 빈번히 등장하는데, 자신의 몸을 양분하는 것은 물론, 양극의 성질을 지닌 물과 불을 한 번에 시전 하는 것 역시 이 기적에 포함된다.¹⁶⁾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살펴본 주석서와 연대기에서는 yamaka-pāṭihāriya가 정확히 어떤 기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발견되지 않는다.

제띠야(cetiya)는 남성 혹은 중성 명사로서, 일반적으로 制多 혹은 支提와 같은 음사어로 표기되거나 탑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일반적인 성역(聖域)이나 성물(聖物), 혹은 붓다와 관련된 유적, 더 나아가 존경과 숭배 등을 지칭하는 광범위한 용어이다.¹⁷⁾ 따라서 위 인용구의 마지막 문구인 *taṃ ṭhānaṃ animisacetiyaṃ nāma jātaṃ*은 붓다가 일주일간 눈을 깜빡이지 않고 머문 그 자리가 *animisa*, 즉 ‘눈을 깜빡이지 않으신 곳’으로 성역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Pps를 바탕으로 다시 Dpv 29송의 문구를 해석해보면, 여기서 *animisa*는 중성명사 *cetiya*가 생략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합어 *animisa-cetiyaṃ*은 앞서 *pallaṅkavaraṃ*과 마찬가지로 중성 주격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지는 Pps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일주일간의 행적 또한 같은 방식으로 Dpv의 생략구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devatānaṃ kaṅkhaṃ ṇatvā kaṅkhāvidhamanattaṃ akāse uppattitvā yamakapāṭihāriyaṃ dassetvā tāsāṃ kaṅkhaṃ vidhamitvā pallaṅkato isakaṃ pācīnaniṣṭhite uttaradisābhāge ṭhatvā cattāri asaṅkheyyāni kappasatasahassaṇṇa ca pūritānaṃ pāramiṇaṃ phalādhigamaṭṭhānaṃ pallaṅkaṇ c’eva bodhirukkhaṇ ca animisehi akkhihi olokayamāno sattāhaṃ vitināmesi. taṃ ṭhānaṃ animisacetiyaṃ nāma jātaṃ. Pps II p.184.

16) PED 및 Vinaya III, p.332; DAI, p.57; 황순일(2019)와 (2021) 참고.

17) 水野弘元, PED (이상 두 사전은 다음의 검색 사이트를 이용했다:

<https://dictionary.sutta.org/>): Cone II pp.166-167.

[깨달음 이후 15-21일:] 그리고는 [깨달음을 얻으신] 자리와 [눈을 깜빡이지 않고 응시하며] 서 계시던 곳의 동쪽과 서쪽의 중간으로 뻗어있는 보석 산책길을 거니시면서 7일을 보내셨다. 그 장소는 ‘보석 산책길’이라 불리는 성역(ratanacaṅkama-cetiya)이 되었다.¹⁸⁾

[깨달음 이후 22-28일:] 그러자 서쪽방향에 있는 신들은 보석집을 세웠다. [부처님께서] 그곳에서 가부좌하시고 앉으셔서 논장을 모두 [숙고하셨고] 그리고 무한한 지혜[가 담긴] 모든 『뺏타나』를 숙고하시면서 7일을 보내셨다. 그 장소는 ‘보석집’이라 불리는 성역(ratanaghara-cetiya)이 되었다.¹⁹⁾

위의 인용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붓다의 깨달음 이후 3-4째주의 행적을 서술하는 Pps에서도 중성명사 cetiya가 언급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Dpv의 간략한 문구들은 cetiya의 생략과 성수격 일치로 재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Dpv 29송이 나열한 caṅkamaṃ과 ratanāgharaṃ은 ratanacaṅkamacetiyam과 ratanaghara-cetiyaṃ를 지칭하는 것이며, 앞서 pallaṅka와 animis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모두 중성 단수 주격이 된다.

한편, Pps는 깨달음 이후 4주차 내러티브에서 붓다가 아비담마 七論을 확립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서술 과정에서 마지막 논서인 『뺏타나(Paṭṭhāna)』가 무한한 텍스트로서 이전의 여섯 논서들과 차별화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신화적 내러티브는 테라와다 전통이 추구하는 아비담마

18) atha pallaṅkassa ca ṭhitatṭhānassa ca antarā puratthimapacchimoto āyate ratanacaṅkame caṅkamanto sattāhaṃ vitināmesi, taṃ ṭhānaṃ ratanacaṅkamacetiyam nāma jātaṃ. Pps II p.184.

19) tato pacchimidisābhāge devatā ratanagharaṃ māpayiṃsu. tattha pallaṅkena nisiditvā abhidhammapiṭakaṃ visesato c’ ettha anantanayaṃ samanta-paṭṭhānaṃ vicinanto sattāhaṃ vitināmesi, taṃ ṭhānaṃ ratanaghara-cetiyaṃ nāma jātaṃ. Pps II p.184.

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해석학적 장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아비담마는 현존하는 테라와다 전통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역설해주는 문헌군으로서, 아비담마 관련 내러티브들은 붓다의 일생 중 중요한 사건들에 거듭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의 주제인 깨달음 직후 7주간의 행적 내러티브에서는 아비담마의 기원을 다루고 있다면, 이후 상카샤 기적 내러티브는 이 아비담마의 가르침이 어떻게 중생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²⁰⁾ 실제로 Pps는 이후 5주차 내러티브를 통해 아비담마의 기원을 더욱 구체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바로 그 보리수 근처에서 4번의 7일을 보내시고서 5번째 7일에 보리수가 있는 곳에서 아자빨라 니그로다가 있는 곳으로 가셨다. 바로 그곳에서 담마를 숙고하시면서 해탈의 기쁨을 느끼시며 앉아계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담마를 숙고하시면서 아비담마에 대한 지혜와 [그 지혜에] 이르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확립하셨다. 처음으로 *Dhammasaṅgāṇī*를, 그 다음으로는 *Vibhaṅga*, *Dhātukathā*, *Puggalapaññatti*, *Kathāvatthu*, *Yamaka*를, 그리고서 *Paṭṭhāna*라 불리는 위대한 논서를 [확립하셨다.] 그곳에서 [부처님]의 마음이 미세한 뻗타나를 통찰하자 기쁨이 일어났다. 기쁨이 일자 혈색이 빛나게 되었고, 혈색이 빛나자 피부가 빛났으며, 피부가 빛나자 몸의 동쪽방향으로부터 집채만 한 크기의 빛들이 생겼으며, 하늘로 솟구쳐 오른 [6개의 상아를 지닌] 차단따 코끼리 종족과도 같이 동쪽의 끝없는 철위산들로 솟구쳐 올랐다. [빛들은] 몸의 서쪽방향으로부터 일어나 서쪽 방향으로, 남쪽 끝에서부터 일어나 남쪽으로, 북쪽 끝에서부터 일어나 북쪽 방향의 끝없는 철위산들로 뻗어나갔다. 두 발바닥으로부터 산호색을 띤 빛들이 뻗어나가 대지를 뒤흔들었고, 바다를 양 갈래로 나누었으며, 바람의 무리를 흩어놓고, 텅 빈 하늘로 솟구쳤다. 머리에 둘러져있는 보석 장신구처럼 푸른빛들로부터 빛의 심지가 일어나 六欲天들을 관통하고 9개의 범계(색계 이상

20) 김경래(2015) pp.229-253; 황순일(2019)과 (2021) 참고.

의 天)들을 지나 텅 빈 하늘로 솟구쳤다. 그 날 헤아릴 수 없는 철위산들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은 모두 금빛처럼 [빛]났다. 그리고 이제 그 하루 동안 세존의 몸으로부터 뿜어져 나온 빛들은 심지어 오늘날 까지도 헤아릴 수 없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다.²¹⁾

Pps는 7주간의 행적을 묘사함에 있어서, 이처럼 화려하고 구체적인 서술을 통해 붓다 스스로 깨달음 직후 아버지담마 칠론을 완성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들 중 마지막 논서인 『뿔타나』에 이르러 온 몸에서 빛이 나와 우주로 전체 뻗어나갔고, 그 빛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남아시아의 현존하는 테라와다 전통 국가들은 『뿔타나』에 다양하고 특수한 의미와 가치를 투사하고 있으며, 여타의 논서들과는 전혀 다른 ‘위대한 논서’라는 별칭을 부여하고 있다.²²⁾ 비록 Dpv는 Pps와 같은 자세한

21) *evam bodhisamīpe yeva cattāri sattahāni vītināmetvā pañcāme sattāhe bodhirukkhamaḷā yena Ajapālanigrodho ten' upasaṅkami. tatrāpi dhammaṃ vicinanto yeva vimuttisukhaṅ ca paṭisaṃvedento nisīdi. dhammaṃ vicinanto c' ettha evaṃ abhidhamme nayamaggam sammāsi: paṭhamam dhammasaṅgariṭṭipakaraṇam nāma. tato vibhaṅgapakaraṇam, dhātukathāpakaraṇam, puggalapaññattipakaraṇam, kathāvattthupakaraṇam nāma, yamakam nāma, tato mahāpakaraṇam paṭṭhānam nāmā ti. tatth' assa saṅhasukhuma-paṭṭhānamhi citte otinṇe pīti uppajji. pītiyā uppannāya lohitam pasīdi. lohite pasanne chavi pasīdi. chaviyā pasannāya puratthimakāyato kūṭāgarādippamāṇā rasmiyo utṭhahitvā ākāse pakkhannachaddantanāgakulam viya pācīnadisāya anantāni cakkavāḷāni pakkhannā. pacchimakāyato utṭhahitvā pacchimadisāya, dakkhiṇaṃsakūṭato utṭhahitvā dakkhiṇadisāya, vāmamsakūṭato utṭhahitvā uttaradisāya anantāni cakkavāḷāni pakkhandā. pādātalehi pavāṇāṅkuravaṇṇā rasmiyo nikkhamitvā mahāpaṭṭhānam viṇibbhijja udakam dvidhā bhinditvā vātakkhandham padāletvā ajātakāsam pakkhannā. sisato samparivattiyamānam maṇidāmaṃ viya nilavaṇṇā rasmivaṭṭi utṭhahitvā cha devaloke vinivijjhivā nava brahmaloke atikkamma ajātakāsam pakkhannā. tasmim divase aparimāṇesu cakkavāḷesu aparimāṇā sattā sabbe suvaṇṇavaṇṇā va ahesum. tam divasaṅ ca pana bhagavato sarirā nikkhantā yāv' ajjadivasā pi tā rasmiyo anantalokadhātuyo gacchanti yeva. Pps II pp.184-185.*

22) 남아시아 국가들의 『뿔타나』 신앙에 대해서는 김경래(2019a) pp.117-146 참고.

설명은 생략하고 있지만, ‘보석산책길’과 ‘보석집’을 7장소의 목록에 나열함으로써 주석서가 제시한 아비담마적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다. 이처럼 초기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비담마 내러티브는 현대국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전승되고 있는 『뻗타나』 신앙의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현대 사회 속에서 테라와다 정체성의 근간을 마련해주고 있다.

붓다가 아비담마를 완성하는 모습을 서술한 이후, Pps는 무짚린다에서의 여섯 번째 일주일을 서술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아비담마는 간접적으로 언급된다.

이처럼 세존께서는 아자빨라 니그로다에서 7일을 보내시고서 이후 7일 동안은 무짚린다에 앉아계셨다. 그런데 [세존]께서 앉으시자마자 갑자기 거대한 구름이 모든 철위산 내부를 가득 채우며 일어났다. 실로 이와 같은 거대한 구름은 전륜성왕이나 부처님이 나타나시는 두 가지 상황에만 비를 뿌린다. 이제 부처님께서 나타나시자 [거대한 구름이] 일었다. 그리고 [거대한 구름]이 일자, 무짚린다라고 불리는 나가들의 왕은 생각했다. “스승님께서 나의 영역에 오시자마자 여기에 구름이 일었으니, [스승]께서 머무실 거처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무짚린다]는 7개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궁전을 지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나의 많은 [공덕의] 과보가 사라질 것이다. 나는 10력[을 지닌 스승]을 위해 몸으로 하는 [하찮은] 의무(kāya-veyyāvaccā)라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후] 자신의 몸을 거대하게 만들어, 스승께 7번 띄리 들고 후드의 끝으로 감싸드렸다. 그 둘레의 끝부분 밑은 로하빠사다 만큼 [넓었다]. 나가의 왕은 서원을 세웠다. ‘스승께서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움직이시며 머무시기를’. 그리고서 이 거대한 공간을 둘러쌌다. 한 가운데에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위쪽에는 아름다운 별빛이 수놓아져 있고, 꽃향기가 어우러진 화환과 옷감으로 만들어진 차양이 있었다. 네 군데의 모퉁이에는 향료로 타오르는 등불이 있었다. 사방에는 전단향이 든 바구니가 열린 채 세워져 있었다. 이렇게 세존께서는 그 7일을 그곳에서 보내시고서 이후 7일 동안은 라자아야파나에 앉아계셨다.²³⁾

붓다가 무짜린다로 이동한 이후 나가들의 왕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Pps는 7개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궁전(sattaratanamayam pāsāda)을 통해 앞서 확립된 ‘아비담마 칠론’을 소환하며 아비담마 성립과 기원의 여운을 되새긴다. 이는 아비담마가 이 내러티브에서 핵심 키워드였음을 암시한다.

한편, Pps의 구체적인 서술을 통해 Dpv 29송의 문구 *pallaṅkaṃ animisañ ca caṅkamaṃ ratanāgharaṃ ajapālamucalindo*가 일련의 장소를 나열한 것이며, 나열된 항목들 모두 단수 주격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격형태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불완전한 계송은 ‘Hanging Nominative’ 혹은 ‘nominativus pendens’라 불리는 주격을 위한 특수 용법을 통해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드러낸다.

콜린스(Steven Collilns)에 따르면, 이 특수용법은 주격형태의 명사들이 나열되었을 때 적용되는 문법으로서, 주절과의 특정한 구문적 관련성 없이 개별적으로 삽입될 수 있다.²⁴⁾ 특히 계송에서 일련의 목록을 나열할 때 이러한 특수용법이 종종 발견되는데,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아래 인용된 『담마빠다(Dhammapada, 이하 Dhp)』 55송이다.

23) *evaṃ bhagavā ajapālanigrodhe sattāhaṃ vitināmetvā tato aparāṃ sattāhaṃ mucalinde nisīdi. nisinnamattass’ eva c’ assa sakalaṃ cakkavāḷagabbhaṃ pūrento mahā-akālamegho udapādi. evarūpo kira mahāmegho dvisu yeva kālesu vassati cakkavattimhi vā uppanne buddhe vā. idha buddhakāle udapādi. tasmim ca pana uppanne mucalindo nāma nāgarājā cintesi, ayaṃ meggo satthari mayhaṃ bhavanaṃ pavīṭhamatte uppanno, vāsāgāraṃ assa laddhuṃ vaṭṭati ti. so sattaratanamayam pāsādaṃ nimminituṃ sakkonto pi, evaṃ kate mayhaṃ mahapphalaṃ na bhavissati, dasabalassa kāyaveyyāvaccam karissāmi ti mahantaṃ attabhāvaṃ katvā satthāraṃ sattakkhattuṃ bhogehi parikkhipivā upariphaṇaṃ dhāresi. parikkhepassa anto okāso hetthā lohapāsādappamāṇo ahoṣi. icchicchitena iriyāpathena satthā viharissati ti hi nāgarājassa ajjhāsayo ahoṣi. tasmā evaṃ mahantaṃ okāsaṃ parikkhipi. majjhe ratanapallaṅko paññatto hoti. upari suvaṇṇatārakavicittaṃ samosaritakusumagandhadāmaṃ celavitānaṃ ahoṣi. catusu koṇesu gandhatelena dipā jālitā. catusu disāsu vivarivā candanakaṇḍakā ṭhapitā. evaṃ bhagavā taṃ sattāhaṃ tattha vitināmetvā tato aparāṃ sattāhaṃ rājāyatane nisīdi. Pps II p.185.*

24) Collins(2005), p.20: pp.40-41.

백단향, 향, 수련 혹은 재스민.

계의 향기는 이러한 향기를 자아내는 것들보다 월등하다.²⁵⁾

Dhp 55송이 나열하고 있는 *candanam*, *tagaram*, *uppalam*, *vassikī* 는 모두 중성명사 주격형태로서 뒤이어 나오는 복수 속격 즉 이러한 향기를 자아내는 것들(*etesam gandhajātānam*)의 구성원들이다. 이처럼 Dhp는 Hanging Nominative 형태를 통해 별도의 관계대명사 혹은 개별적인 서술어 없이 일련의 항목을 주절에 삽입하여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의미를 완성한다.

Dpv 29송의 문구는 Dhp 55송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Dpv는 먼저 붓다가 깨달음 이후 6주간 이동했던 경로들을 (1) 깨달음을 성취한 최고의 자리(*pallaṅka*), (2) 눈을 깜빡이지 않으며 서 있었던 곳 (*animisa*), (3) 아비담마를 구상하던 보석산책길(*caṅkama*), (4) 아비담마를 숙고하던 보석집(*ratanāghara*), (5) 아비담마를 성립한 아자빨라 (*ajapāla*), (6) 아비담마를 되새긴 무짜린다(*mucalinda*) 순으로 나열한다. 그리고 7번째로 키라빨라 주변(*khīrapālena*)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행해야 할 일을 끝마친 후 초전법륜을 위해 바라나시로 떠나는 붓다의 모습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IV. 결론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연대기와 주석문헌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이들이 공유하고 있던 해석학적 관점과 의도를 밝히는 것이다. 서론에서 밝

25) *candanam tagaram vā pi uppalam atha vassikī, etesam gandhajātānam silagandho anuttaro. Dhp 55.*

했듯, 논자는 이 거시적인 주제의 시론으로서, 먼저 붓다의 깨달음 이후 7주간의 행적이라는 내러티브를 분석했다. 붓다의 깨달음 직후 행적은 연대기와 주석서는 물론 초기불전에서 쉽게 발견되는 내러티브이다. 그러나 초기문헌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후대에 제작·전승된 연대기와 주석서들은 모두 이 기간을 7주로 명시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내러티브를 확립하고 있다. 이에 논자는 이 내러티브가 서술된 Dpv와 Mhv, 그리고 Pps를 비교 분석했다. 이제까지 검토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Dpv와 Mhv는 이 기간을 압축적이고 간략한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Mhv는 이를 7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으며, Dpv 역시 붓다가 7주간 머물렀던 7군데의 장소를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빠알리 위냐야 『마하와가』는 물론 한역 율인 『오분율』과 『사분율』과 같은 초기문헌들의 세계관과는 명백한 차이점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둘째, Pps는 7주간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주고 있는데, 이는 연대기의 불완전한 서술들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연대기의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구로 서술된 내러티브는 Pps에 이르러 그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Dpv의 빠다 분류(9송 4pada를 10송 현재분사 목적으로 연결), 6장소들의 정확한 명칭(생략어구 복원을 통한 중성명사화), 그리고 Hanging Nominative로 해석 가능한 6장소들의 나열(29송 1-2pada에 나열된 중성 단수 주격 단어들에 특수용법 적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Pps의 내러티브는 아비담마 칠론의 정립에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으며, Dpv와 Mhv는 이러한 세계관을 공유 및 지지하며 7주 내러티브를 함축적으로 전승하고 있다. 연대기와 주석서의 아비담마 세계관은 이후 테라와다의 정체성으로 확장된다.

이상 살펴본 연대기와 주석서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 그리고 초기경전과는 차별화된 세계관의 공유는 CE 5세기 전후로 정립되기 시작한 마하위하라 중심의 테라와다 정체성의 일면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확인한 내러티브는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극히 제한된 근거에 불과하므로, 이후 추가적인 비교연구를 통해 이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참고문헌

1. 원전류

Dhp : *Dhammapada*, ed. by O. von Hinüber, K.R. Norman, Oxford: Pali Text Society, 1995.

Pps : *Papañcasūdanī*, ed. by J.H. Woods, D. Kosambi, I.B. Horner, London: Pali Text Society, 1922-1938.

Dpv : *Dīpavaṃsa*, ed. and trans. by Hermann Oldenberg, Oxford: Pali Text Society, 1879.

Mhv : *Mahāvamsa*, ed. by Wilhelm Geiger, Lancaster: Pali Text Society, 1908; trans. by Wilhelm Geiger, *The Mahāvamsa or The Great Chronicle of Ceylon*, London: Pali Text Society, 1912.

Vin : *Vinaya Piṭakaṃ*, Vol 1. ed. by Hermann Oldenberg, Oxford: The Pali Text Society, 1997.

『彌沙塞部和醯五分律』 T22 (no.1421)

『四分律』 T22 (no.1428)

『大智度論』 T25 (no.1509)

2. 사전류

Cone : A Dictionary of Pāli I & II & III. Bristol: Pāli Text Society. (2001 & 2010 & 2020)

MWD : Monier Williams Sanskrit Dictionary

<https://sanskritdictionary.com/vara/201952/1> (최종
검색: 2021년 5월 21일)

PED : Pāli English Dictionary (Pāli Text Society)

<https://dictionary.sutta.org/> (최종검색: 2021년 5월 12일)

水野弘元 : 『パーリ語辭典』 <https://dictionary.sutta.org/> (최종검
색: 2021년 5월 12일)

3. 단행본 및 논문

Collins, Steven(2005). *A Pali Grammar for Students*, Chiang
Mai: Silkworm Books.

Geiger, Wilhelm(1905). *Dīpavaṃsa und Mahāvāṃsa und die
geschichtliche Überlieferung in Ceylon*, Leipzig:
Deichertsche Verlagsbuchhandlung Nachf.

Hinüber, Oskar von(1996). *A Handbook of Pāli Literature*.
Berlin: Walter de Gruyter.

Inden, Ronald, and Walters, Jonathan S., and Ali,
Daud(2000). *Querying the Medieval, Texts and the
History of Practices in South Asia*, New York: Oxford
Univ. Press.

Malalasekera, Gunapala Piyasena(1928). *Pāli Literature of
Ceylon*, Colombo: M.D. Gunasena & CO., LTD.

Norman, K.R.(1983). *A History of Indian Literature*,
Wiesbaden: Otto Harrassowitz.

김경래

2012 「Theravāda 정통성에 대한 小考: Dīpavaṃsa와 Mahāvāṃsa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제62집. 서울: 한국불교학

회, 303-336.

- 2014 「랑까섬의 국가종교 수호자들과 아비담마: 연대기와 주석서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제70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pp.331-352.
- 2015 「후기 빠알리 내러티브에 나타난 종교적 의도와 함축적 의미: 테라와다 아비담마의 기원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제73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pp.229-253.
- 2019a 「『뻏타나(Paṭṭhāna)』 연구를 위한 시론: 주석서의 내러티브와 인식과정이론(citta-vithi)을 중심으로」, 『보조사상』 제54집. 서울: 보조사상연구원, pp.117-146.
- 2019b 「『디빠왕사(Dīpavaṃsa)』와 『마하왕사(Mahāvāṃsa)』 비교연구: '서시'와 '붓다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불교연구』 제51집.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pp.109-138.
- 2019c 「『디빠왕사(Dīpavaṃsa)』와 『마하왕사(Mahāvāṃsa)』 비교연구: 붓다의 랑까섬(ṅkāḍīpa) 예찬을 중심으로」, 『보조사상』 제55집. 서울: 보조사상연구원, pp.9-33.

이자랑

- 2001 「사만따빠사디까의 서문과 빨리 연대기에서의 제1결집」, 『불교원전연구』 Vol.2.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pp.119-164.
- 2002 「사만따빠사디까의 서문과 빨리 연대기에서 제 2결집」, 『불교원전연구』 Vol.4.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pp.97-139.
- 2003 「사만따빠사디까의 서문과 빨리 연대기에서의 제 3결집(1)」, 『불교원전연구』 Vol.5.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pp.189-217.
- 2004a 「사만따빠사디까의 서문과 빨리 연대기에서의 제 3결집(2)」, 『불교원전연구』 Vol.6.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pp.181-

205.

2004b 「사만따빠사디까의 서문과 빨리 연대기에서의 제 3결집(3)」, 『불교원전연구』 Vol.7.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pp.1-28.

4. 영상자료

황순일

2019 미닛부디즘: 부처님의 상까샤 기적을 통해 아비담마가 부처님의 말씀인 붓다와짜나가 되어가는 과정

(https://www.youtube.com/watch?v=N5Tlt5MRgZo&list=PLuEooB5da3Yi_2wVfpjdxY9kELorbt7E2&index=3)

2021 미닛부디즘: 부처님의 4가지 기적 이야기: 라자가하, 슈라와스티, 상까샤, 와이살리 기적.

(<https://www.youtube.com/watch?v=GAVJpdbul6c>)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Narrative:
Traces of the Buddha for 7 Weeks After His
Awakening

Co-authors: Jaegeun Ahn, Yealim Kwon

/ Graduate Student, Dongguk Univ.

Corresponding Author: Kyungrae Kim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

The narrative concerning the traces of the Buddha for 7 weeks after his awakening has been transmitted in diverse forms in Theravādin countries in South Asia. This study investigates how different groups of Pāli literature recount the narrative variously by looking into two chronicles (*Dīpavaṃsa*, *Mahāvāṃsa*) and a commentary (*Papañcasūdanī*). *Dīpavaṃsa* and *Mahāvāṃsa* portray the traces of the Buddha in brief verses while underlining that the narrative covers a period of 7 weeks and identifying the specific places the Buddha visited during that time. On the other hand, The same narrative is expressed in *Papañcasūdanī* through metaphors and embellishments. This version of the narrative contains more detailed information missing in the verses and is notably dedicated to establishing the origin of Abhidhamma. These can be interpreted as characteristics peculiar to later Pāli literature.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possible hermeneutic intentions of Theravāda literature after Tipiṭaka with the establishment of Abhidhamma at the center.

* Keywords

Dīpavaṃsa, Mahāvāṃsa, Paṅcasūdanī, chronicles, Theravāda Abhidhamma

투고일자 : 2021. 05. 18.

심사기간 : 2021. 06. 19. ~ 2021. 06. 21.

게재확정 : 2021. 07. 11.